

엔터/레저

김장열  
jay.kim1007@gmail.com  
02-3779-3531

# 런닝맨 Briefing



레드캡투어  
(038390.KQ)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시가총액	1,568억	투자의견	Attention	목표주가	-	현재주가	18,250원
------	--------	------	-----------	------	---	------	---------

고점 (30,550원/22년 5월 26일)대비 40% 하락한 상태인 여행/렌터카 사업 업체이다. 1분기 매출액은 YoY 소폭 (-4.5%) 감소한 606억원이었지만 (여행 30.8억/ YoY +21.5%, 렌터카 575.9억/ -5.6%) 영업이익은 +46% 큰 폭으로 증가한 112억원 (OPM +18.6%)을 기록했다 (여행 -16.4억 /7% 적자폭 확대/OPM -53.2%, 렌터카 129억/OPM +22.4%/ +39%).

여행부문은 출장/행사 인원 증가로 (18120명 YoY +39%, QoQ +17%) 매출액 증가했다. 하지만 리오프닝 준비로 영업손실은 소폭 증가한 것이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로 여행관련주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레드캡투어는 개인여행 대비 안정적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 대응 고객 맞춤형 (B2B) 중심으로 2분기부터 수익성 측면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기대해 본다. 이 점이 확인되고 3분기 업황 개선이 뚜렷해지면 가장 큰 동사의 이익성장 레버리지가 될 것이고 이 점이 동사에 주목하는 첫번째 이유이다.

둘째, 장기 렌터카 계약확대로 렌터카 차량 증가 추세이다. 1분기 신차 출고 지연으로 중고차매각 매출이 감소했으나, 렌터카 보유대수는 22년 1분기 21,208대 YoY+9.4%/QoQ+4.1%. 세번째는 배당매력이다. 최근 3개년도 주당 배당금 지속 상승 (19년 800원, 20년 600원, 21년 800원), 21년 기준 4%대 배당수익률이다. 22년 1분기 순이익\*4배=22년 이익으로 가정해도 (실제는 더 높을 것) YoY 이익 +2.4배 점프이고 코로나 이전 19년 실적도 가볍게 넘게 된다. 이 기준으로 현재주가는 PER 5.4배에 불과하다. 7월 27~28일 당사와의 NDR에 주목할 이유가 충분하다.

Financial Data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세전이익	순이익	EPS (원)	증감률 (%)	EBITDA	PER (배)	EV/EBITDA (배)	PBR (배)	ROE (%)
2019	258.8	35.0	28.8	22.2	2,589	0.0	148.5	6.0	2.1	0.8	14.2
2020	229.5	20.1	14.4	11.1	1,292	-50.1	128.9	14.9	3.0	1.0	6.7
2021	228.9	20.5	15.9	12.1	1,408	9.0	135.9	14.8	3.0	1.0	7.0

자료: 레드캡투어, K-IFRS 연결기준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김장열)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Overweight(비중확대)			
	업종 비중 기준	Neutral (중립)			
	투자등급 3 단계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투자등급 4 단계	단기 주가 상승		3.0%	
		중장기 주가 상승		51.1%	투자의견 비율은 의견 공표 종목들의 맨 마지막 공표 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 등급별 비중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
		단기 주가 하락		0.3%	
		단기 주가 박스권		4.1%	
		Attention		41.6%	
		합계		100.0%	